

# SK그룹, 서린동 사옥 재매입

## BoA와 5500억원에 매매계약 ... 인천정유 인수 이후 6년만에

SK그룹이 6년 전 미국 투자은행에 팔았던 종로구 서린동 사옥을 재매입해 주목된다.

업계에 따르면, SK는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부동산 펀드를 조성해 서린동 사옥을 되사기로 하고 2월28일 건물주인 BoA Merrill Lynch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며, 매입액은 약 5500억원으로 알려졌다.

SK는 지주회사인 SK(주)와 SK이노베이션, SK E&S 등이 부동산 펀드에 60%를 출자하고 국민연금이 남은 지분을 투자하는 방식이며, 5년 펀드 만기가 끝나면 SK그룹이 우선매수권을 갖기로 했다.

또 연 200억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수익으로 분배할 계획이다.

SK그룹은 2005년 인천정유 인수자금 확보를 위해 서린동 사옥을 약 4500억원에 BoA Merrill Lynch에 매각한 바 있다.

SK 서린동 사옥은 지하 7층, 지상 35층 규모로 SK(주)와 주요 계열사들이 입주해 있고 35층에는 최중건 1대 회장과 최중현 2대 회장의 흉상도 있는 등 SK그룹에는 상징성이 큰 곳이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1/02/28>